

주요회원게시(8/20,9/12받은게시)

2009년 8월 20일 (목) 새벽 2시 30분~

(스타 3차 40일 조건 기도 중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생명을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록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시며 돌아오기 바라시며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내 곁을 떠나는 순간 끝인 것을 왜 그곳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매일 역사해주고 함께해 주고 있거늘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의 그 깊은 뜻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느냐. 이 생명 그냥 두면 사망지옥으로 가기에 밤낮주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또한 나의 심정의 대변자되어 나의 심정 또한 전해주고 있다. 나는 선생을 통해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 말할 수밖에 없다.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몇 없기 때문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늘 수정같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 세상을 뒤흔들고 뒤엎을 것이다. 세상이 뒤흔들려지고 뒤엎어질 것이다. 어려울 때만 나를 찾지 마라. 지금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날에도 너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세상이 뒤흔들려야 그때야 나를 찾을 것이냐. 이 모든 징조로 예언으로 이 모든 계시의 말로 나는 수없이 말하고 있다. 깨닫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우리 지금 느껴보자. 지금이다. '오늘은 못 느꼈으니 내일 은혜받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자는 이미 늦은 자다. 생명록에서 지워질 것이다.

지금이다. 이 순간 나를 만나지 못하면 아니 된다. 마음을 찢고, 주관을 찢고 나를 부르고 찾아라. 용기 내어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는 만날만한 때에 오고 너희는 나를 만날만한 때에 만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다. 어둠에 한 줄의 빛이 들어온다면 그 빛을 따라가야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마지막 한 줄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고 있다. 이 빛마저 사라지면 앞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려지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된다. 곧 일어날 예언들이다.

성령이 식었느냐. 성령을 식힌 자는 나의 귀함을 모르는 자다. 성령을 잃은 자는 나를 잃은 자다. 찾아라. 지금 찾아라. 성령을 찾아라. 다시 잡아라. 애원하라. 간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구걸하듯 너희도 나의 사랑을 간구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의 성령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성령이 무엇인지 맛만 보고 말 것이냐. 음식도 맛만 보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내 몸에 들어와 내 것이 되듯 성령도

맛만 보지 말고 확실히 받아야 한다. 섭리사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나 지금 음식을 맛만 본격과 같다. 그리고는 그 맛을 다 느꼈다는 듯이 그냥 멀뚱히 음식만 보고 있다. 성령을 맛만 보듯이 받지 말고 다시 확실히 받아라. 확실히 받아보아라. 너희는 지금 맛만 본격과 같은데 더 확실히 받으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내가 줄 것이니 받아라. 너희에게 쏟아 줄 것이니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같이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시여. 성령을 간구하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을 물붓듯 쏟아부어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확실히 받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하고 가여운 이들, 사랑하는 자, 이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의 손을 놓으면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들의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구하지 않을 지라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족하게 구할 지라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부어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이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내가 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찾으시면 떠난다고 하였으나 발걸음이 떨어지겠나이까. 하나님, 제발 불쌍한 이들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어 모두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자. 영원히 사랑하자. 나의 사랑하는 신부 우리 영원히 함께하며 사랑하자. 나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멋진 신랑되어 줄게. 사랑한다. 기도하라. 안녕.

9월 12일 (토) 새벽 1시 58분경 받은 말씀

(예수님께서서는 저에게 심정 기록하길 원하셨고 제가 그 심정을 맞춰드리기 위해 더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기록할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때 꼭 기록하게 해주세요 하니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정말 10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꼭 이루어야겠다고 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섭리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뒤 미국과 캐나다의 말씀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많은 신부들이여.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변하지 않을 우리의 사랑,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제는 모든 사탄 마귀를 떨하고 너희가 모두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 너희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향하였다. 성령의 때, 성령을 받고 나의 모든 계시의 말을 믿고 따라온 나의 사랑

하는 자들 순종하며 따라오니 난 너희가 너무 좋구나.
자기의 모든 주관, 성격 모두 내려놓고 오니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구나.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해나가자. 지
치지 말고 조금 더 힘써 해나가자. 너희 모두가 나의 심
정 알아주니 나는 기쁘구나.

그러나 나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아직
도 폭풍이 곧 밀려올 바다에 앉아 있으니 애가 타는 것이
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하고 울부짖는 것이니라. 나
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꼭 그 나라 천
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지옥은 가면 안돼. 그곳
은 모든 재앙만이 존재하고 너희를 계속해서 죽이고 갇은
방법으로 죽이고 또 죽인다.

너희의 그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나의
마음은 그 죽음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 나의 사랑하는 자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너희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녹이고 나의 마음도 녹이고 있다. 너희
의 감사생활, 회개생활, 주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있노라. 이 생활을 쉬지말고 끝
까지 하여 더 뜨거운 불로 각자의 마음을 녹이고 각자의
모든 죄를 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 너희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에게
멀어졌을 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는지 아느냐. 이
렇게 모두 발걸음을 돌려 나에게로 돌아와 주니 나는 사
랑하는 나의 계순이에게 너무 고맙고 너희 사랑하는 신부
들에게도 너무 고맙구나. 나의 마음알고 생명전도하고 관
리하고 죄를 회개하니 고맙구나. 고맙구나. 이 사랑 변치
말고 영원한 사랑이 되어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자. 사랑
에 깨어나고 나의 심정을 주었으니 이제 모두 생명을 전
도하자. 구원하자. 이끌어 오자.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
는 할 수 있다. 생명들의 심정을 알아 녹여주어라. 심정을
잡아야 한다. 인생의 근본을 알려주고 하늘 아버지의 존
재하심과 내가 곧 올 것을 꼭 전해다오. 10만 선교를 향
해 달려가 보자. 10만이 무엇이냐. 20만, 30만, 100만도
해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능력을 받았으니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절대 낙심 말고 담대히 행하여
라. 기도하므로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을 위해 기도해
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운 불을 전해주면 되는 것
이다. 나도 늘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그 생명을 위해 하
늘 아버지께 간구할 것이니 간구할 것이니 우리 해나가
자.

10만 선교, 10만, 10을 향해 달려가자. 그 뜻을 이루면
새로운 섭리사의 전환이 올 것이야.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얼마나 섭리사에 많은 축복을
해주겠느냐. 그 모든 축복을 받아 우리 더 전진하고 앞서
가는 것이다. 전진하라. 전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
든 자들에게 나를 알려다오. 나는 늘 너희에게 간다. 그리
고 매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낙심 말고 10만 향해, 20

만 향해, 100만을 향해 달려가 보자. 그러다 나를 만나면
얼마나 그 만남이 기쁘겠느냐. 그렇게 나를 만나면 나는
너희에게 환한 웃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욕이
되어다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늘 아버지께 희망 걸고 앞장서서 가는 나 예수를 따라
오라. 나는 섭리사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 나의 모든 희망을 걸고 싶구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
아야 한다. 사랑한다. 안녕.

(미국, 캐나다에게 하신 말씀)

나 예수는 말했노라. 너희에 대한 심판을~
섭리사의 많은 사람들 돌아오고 있다. 너희도 지금 전도
해 나가야 한다. 심판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하지만 내
가 너희를 사랑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노라. 지금은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하여 깨
끗이 민족위해 회개하며 하늘 심정, 주님 심정 알고 많은
자들에게 애타는 나의 심정을 전해줘야 한다. 그 길이 환
란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은 10만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10만 선교에 미국, 캐나다 너희도 함께하라. 앞장서서 가
라. 하늘 아버지의 더 큰 손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해나
가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이 내려오는 것과 내려오지
않게 함은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너희의 믿음, 나는 놀랍고 놀랍도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
들이여, 너희의 믿음이 나는 놀랍고 놀랍도다. 너희는 그
동안 걸어온 6천년의 역사 그들의 무지함을 깨고 나를 따
르고 내가 중심자를 세워 역사함도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 너희의 상이 이 나라 하늘에서도 큼이라. 절대 어떤
말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말에도 미혹되지 말고 오직
선생을 통해 하는 그 말만 믿고 순종하고 행하여라. 너희
민족의 심판이 있을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그러
니 절대 한눈팔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이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나. 그
러니 더 굳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와 사랑하
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함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열심
히 함께하여 나의 재림의 때에 너희 모두를 나는 만나기
를 원한다. 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겠노라. 두려워말
고 행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 너희 옆에 늘 함께해
줄 것이니 너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 예
수 앞장서서 갈 것이니 너희도 나를 따라 민족의 기준이
되어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라. 영원히 사랑할 나의 신부
들이여, 너희를 정말 내가 사랑하노라. 안녕.

이 시대의 역사 내가 이루고 너희 선생 통해 이루니 걱정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해야 한다. 영광의 주
나 예수가. 안녕.